

문학사와 철학사의 통합 전망에 관하여

김 성 룡*

차 례

- | | |
|--|--------------------------------------|
| 1.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양상』에서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로 | 3. 철학적 전망과 입체적 논의
4. 다시, 철학과 문학으로 |
| 2. ‘문학과 철학’인가, ‘문학사와 철학사’인가? | |

1.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양상』에서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로

조동일 교수의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¹⁾는 표제어대로 우리 나라의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을 중심 문제로 다룬 저작이다. 1996년에 출간되었으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시효가 지난 저작을 거론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저작은 그 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이 분야에 관한 본격적인 다른 저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여전히 가장 최신의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저자의 최근 저서인 중세문학 3부작²⁾, 저자가 최근 집필 완료한 ‘세계의 철학사와 문학사’의

* 호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조동일,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이하 『한국의』로 약칭

2) 조동일 교수의 화답을 기원해 스스로 편찬한 중세문학삼부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모두 지식산업사에서 1999년에 간행되었다.

다리가 된다는 점에서 저자의 학문 세계의 한 전환점이 된다는 의의도 크다.

이 글은 이 저작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저자를 통해 우리 문학 연구사에서 등장한 문학과 철학이라는 패러다임이 어떤 방법론적 모델을 갖추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고, 이런 패러다임과 방법론적 모델을 저자의 수백을 입으며 문학사상사를 전공한 제자가 어떻게 계승할 것 인지 밝히려 한다. 그러니 기존의 서평 관례를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전통 학문에서 ‘夫子’라 칭하면서도 학문의 논란이 가능했던 전례를 따라 저자 조동일 교수를 ‘선생님’으로 호칭하되, 근세 학문에서 선행연구자를 평칭하는 관례를 따라 경어법을 쓰지 않는 문체를 선택한다.

『한국의』는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양상』³⁾을 수정, 보완한 책으로, 출판 용어로 하자면, 증보판이 된다. 『관련양상』에 3편의 글이 들어 있던 데 비해, 『한국의』는 10편의 글이 들어 있으므로 관례적 증보와는 사정이 다르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야 선생님이 이 저작을 낸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어 이것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내용을 수정한 것과 새로 추가한 것, 그대로 유지한 것은 다음과 같다.

『관련양상』	『한국의』	비고
머리말--- 문학과 철학사 무엇이 문제인가	머리말--- 문학과 철학사 무엇이 문제인가 1. 義相·明鼎·元曉의 질서관과 문학 이론	수정 추가
1. 13세기 시론에서 문제된 心과 物	2. 元曉 설화의 변모와 사상 논쟁	추가
2. 15세기 鬼神論과 귀신이야기의 변모	3. 李仁老와 李奎報의 시론에서 문제된 심과 물	유지
3. 18세기 人性論의 혁신과 문학의 사명	4. 15세기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변모 5. 李珣 문학사상의 근본문제 6. 18세기 인성론의 혁신과 문학의 사명 7. 朴趾源과 安藤昌益의 비교연구 서설 8. 崔漢綺의 글쓰기 이론 9. 근대극복의 과제와 한·일학문 10. 生克論의 역사철학 정립을 위한 구상	유지 추가 유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3) 조동일,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양상』, 한샘, 1992; 이하 『관련양상』으로 약칭.

『관련양상』에서는 13, 15, 18세기의 세 개의 점으로 성글게 찍혀 있던 것이 『한국의』에서는 의상으로부터 최한기까지 이어지는 조밀한 점으로 바뀐 것 같고, 『한국의』의 9, 10번 글은 한국의 사정으로부터 일본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체, 세계 역사 철학적 전망을 기획하고 있다. 관련 양상들을 살펴보면, 이는 초기의 소박한 기획을 대신해 본격적으로 ‘문학사와 철학사’를 서술하겠다는 의도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한국의』는 『관련양상』을 母本으로 해 본격적으로 철학사와 문학사를 집필하고자 기획한 새로운 저서라고 해야 옳다.

그런 차이를 보여서인지 『관련양상』은 『한국의』를 배제한 모체라는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소 성급한 출판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거리감은 두 개의 저작을 낸 각각의 출판사의 차이에서도 보인다. 『관련양상』은 당시 국어국문학회와의 관련 속에서 본격적인 학술서적을 출판해보려는, 중·고등학생용 참고서적 전문출판사인 “한샘”에서 났다. 선생님의 중요저술이 대부분 “지식산업사”에서 낸 것에 비해 특이한 일이다. 그러던 것을 『한국의』에서는 지식산업사에서 났다. 그 동안 판을 바꾼, 『문학사상사론』⁴⁾, 『한국문학통사』⁵⁾ 등의 저작들이 출판사까지 바꾸지는 않았는데 이번 저작은 출판사를 바꾸었다. 『한국의』가 『관련양상』의 면모를 일신해야 할 필요가 절실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사정 때문이라도 『관련양상』은 상대적으로 덜된 저작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는 면모를 일신했다. 관련 양상을 다루겠다는 이전의 제한은 사라지고, 한국의 것을 다룬다는 새로운 제한이 추가되었다. 사실 『관련양상』도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 양상을 다룬 것이지만 다른 나라의 그것을 다룬 것은 아니었으므로, 유난히 『한국의』가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를 살핀다고 표제어부터 드러내어 나타낼 필요는 없었다. 더욱이 『한국의』의 7, 9번째 논문은 ‘한국의’라는 제한을 넘어서는 것 같다. 그런데도 ‘한국의’라는 관두어를 더한 데에는 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다.

‘관련 양상’을 살핀다는 제한을 벗은 것은 문학사와 철학사의 구체적인 관

4) 조동일, 『문학사상사론』, 지식산업사, 1978; 이하 『시론』으로 약칭.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82, 1990, 1994; 이하 『통사』로 약칭.

련의 양상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문학사와 철학사를 함께 다루어야 할 근거를 마련하려 했기 때문이다. 『관련 양상』보다 두 배 이상이 되는 글이 더해졌으므로 양적으로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밝히듯, 문학과 철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긴 데 있다. 철학에서 출발해서 문학으로 나아가면서 문학을 새롭게 이해하는 원리를 찾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1, 5, 8의 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이다. 그러니까 『한국의』는 우리 학문의 당면 문제를 다루며, 문학을 새롭게 이해하는 원리를 철학으로부터 찾는 일을 맡아하기 위해 수정 증보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선생님이 문학과 철학을 함께 다루어 문학의 근본문제를 해명하고자 한 과정을 —瞥하면서 발길을 멈춰보자. 1978년 출간한 『시론』은 그 본격적인 첫 저작이다. 몇몇 글은 개별 논문의 형태로 발표했으나 본격적인 저술을 목적으로 글을 모아 출간했다. 이 저작은 문학에 관한 사상의 역사에 대한 기념비적 저작으로 그 가치가 지금까지도 인정되고 있다. 그 이후 문학과 철학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개별 논문으로 발표하다가 『관련 양상』을 통해 한차례 성과를 모았고 『한국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세계의 철학사와 문학사』⁶⁾를 탈고해 2000년 출간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1978년부터 시작한 문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2000년에 이르러서 완성하는 셈이다.

2. ‘문학과 철학’인가, ‘문학사와 철학사’인가?

문학과 철학을 함께 다루는 공동의 제목으로 ‘사상’과 ‘철학’이라는 용어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문학과 ‘문예’와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문예사상, 문학사상, 문예철학, 문학철학 등의 용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

6) 조동일, 『세계의 철학사와 문학사』, 미간행. 이하, 『세계의』로 약칭한다. 필자는 이 책을 원고 상태로 보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출했으므로 원고 상태와는 다르게 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기본적인 논지는 변함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은 『시론』에서 ‘문학사상’이라는 제목을 걸었으나 『관련 양상』과 『한국의』, 『세계의』가 ‘문학사와 철학사’라는 제목을 공유하고 있음을 본다. 그래서 『관련 양상』 이후의 저작 제목으로 삼은 ‘문학사와 철학사’에 대해 주목한다. ‘사상’이 아니라 ‘철학’을 내세워 문학 사상의 근본문제를 다룬 것과 ‘문학과 철학’이 아닌 ‘문학사와 철학사’로 역사적 방향성, 즉 시간의 축을 고려한 것을 주목해야겠다. 새로 제기하는 문제가 이치의 근본을 따져 문학과 철학의 통합적 전망을 기획하고 그 사적 흐름을 논의함으로써 지성사의 근간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국의』에 실린, <머리말>을 제외한 10편의 글 중에 한국 철학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은 1에서 8까지 모두 여덟 편이다. 그것이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무엇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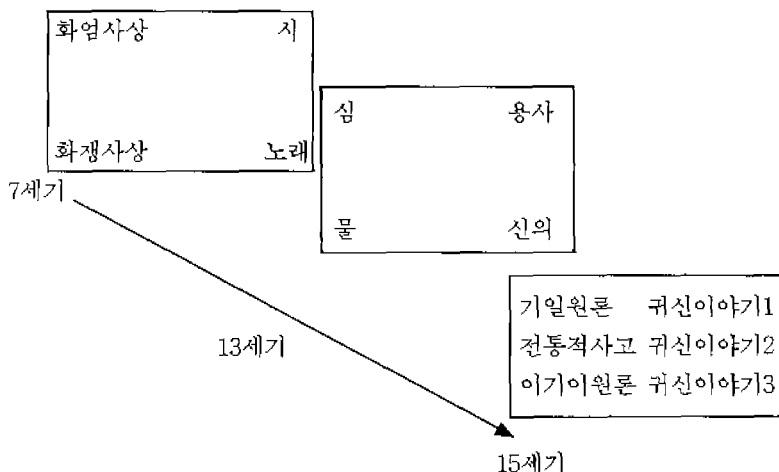
글	시기	인물	철학의 문제	문학의 문제
1	7세기	의상, 명효, 원효	불교적 질서관	장르선택과 미의식
2	7세기	원효	화쟁사상	원효 설화
3	13세기	이인로, 이규보	심과 물의 第一義性	용사와 신의
4	15세기	김시습, 남효온, 성현, 서경덕, 이이	생과 사	귀신 이야기
5	16세기	이이	산수자연과 도체	산수시
6	18세기	湖洛學派	인물성논쟁	노래의 근거, 창작방법론
7	18~19세기	박지원, 安藤昌益	기철학과 민족주의	寓喩를 통한 글쓰기
8	19~20세기	최한기	기철학과 근대	글쓰기 이론

질서관, 물심관, 생사관, 도문관, 인물성논의, 근대와 민족주의 등은 지성사

의 명편, 명장면이라 할 수 있어 『한국의』는 철학사의 명장면을 수색해 문학의 문제와 관련 짓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물성 논쟁과 같은 것은 근 2백여 년을 끌어온 조선 후기 유학사의 대논쟁인데 그 동안 오로지 공리공론으로 치부되거나, 전적으로 철학의 문제토만 여겨졌다. 『관련양상』이 지금까지 철학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것이 문학의 근본문제였음을 밝힘으로써 문학연구의 전환을 이룩한 큰 업적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이은 『한국의』는 첫째 철학의 역사적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둘째 문학과 철학의 접점을 근본에까지 따졌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 두 가지 기여야말로 제자들을 분발하게 하는 점이라 좀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철학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문제이다. 7세기의 의상과 명호·원효, 13세기의 이인로·이규보, 15세기 김시습에서 이이까지, 16세기 이이, 18세기 영호남의 학자들, 18세기말 19세기의 박지원 집단, 19세기말의 최한기까지. 사회 통합의 문제, 존재의 第一義性에관한 문제, 생사의 본질에 관한 문제, 현상과 진리, 진리와 표현의 문제, 중세 봉건적 질서의 지속과 변형의 문제, 근대 민족주의의 태동에 관한 문제, 근대적 사유의 출발에 관한 문제 등 굵직한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철학의 논란이 문학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장면을 찾아 서술한 것으로 시간적 전개에 한계를 갖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차례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세기의 질서관한 논쟁 이후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가, 15세기의 귀신론 이후에는 귀신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가, 18세기 인성론 이전과 이후에는 인물에 대한 대립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가... 각 개별 논의의 향방이 의심스러워진다. 그래서 『한국의』의 전개 방식은 영화적 전개 방식이라기보다는 스틸 사진들의 모음에 의한 전개 방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도시하면 보다 선명할 것 같다.



『한국의』의 의의는 지금까지의 철학사 서술 방식이 우뚝한 사상가들을 점으로 세우고 그것을 시간으로 나열한 데 비하면, 면의 넓이를 획득했던 의의가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의』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면의 시간적 배열을 넘어서 한국 문학사와 철학사의 입체적 전개에 있다.

둘째, 문학과 철학의 접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은,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정제된 사상으로, 정제된 사상으로부터 보다 체계와 개념을 갖춘 철학으로 발전된다. 또 한 개인의 단순한 생각 아래에 덧없이 변화해 포착하기 어려운 감정과, 의식의 아래에 잘 알 수 없는 무의식이라는 것까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무의식, 감정, 단순한 생각, 사상, 철학의 위계를 갖는 셈이다. 누구나 무의식을 갖고 미묘한 감정을 갖고 있으나 사려 깊은 행동과 깊은 사상, 그리고 철학적 체계를 갖추어 가기는 어렵다. 소수의 사람만이 사려 깊어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이에게 영향을 주는 사상을 전하는 이는 더욱 소수이며, 철학의 체계를 건립할 수 있는 이는 더욱더 희소하다. 철학이란 이치의 근본문제에 대한 개념적 진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상 역시 인간의 근본문제에 답하지만, 반드시 개념적 진

술을 이용한 필요는 없다. 사상은 용어 선택에 있어 자유롭다. 선행의 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논란을 벌일 필요 없이 자기가 만든 용어를 사용해 자기의 생각을 진술하는 자유가 사상에 있다. 반면 철학은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선행의 용어를 분명히 정의하고자 한다. 철학사는 개념사라는 말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사는 첫째는 이치의 근본문제에 대한 물음에 대한 역사이며, 둘째는 그것에 대해 진술하는 개념과 용어의 역사이다. 『한국의』는 이치의 근본 문제의 역사와 그것의 개념과 용어의 역사를 서술할 책임을 제자들에게 남겨 놓고 있다.

3. 철학적 전망과 입체적 논의

이치의 근본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그 동안 몇 되지 않는다. 거명하자면, 있음과 없음에 대한 물음, 궁극적 존재(arche)에 대한 물음, 대립물에 대한 물음, 만물 생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 인식과 존재에 대한 물음, 존재와 운동의 체계에 대한 물음, 잠재된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 등이 여기에 꼽힐 것이다. 이런 물음에 답하는 용어는 이보다 더 많아 일일이 들기 어렵다.

이치의 근본문제는 단선이나 가우스 함수의 선처럼 발전해온 것이 아니다. 산스크리트에서 유와 무에 대한 견해를 이어서, 그리스시대에 arche에 대한 물음이 이어졌고, 중국에서 음양 대립에 대한 물음이 대를 이어 등장해 인류의 철학사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문제들은 모두 인간의 근본문제들이며 인류가 전개해온 철학사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서술하는 일이 세계철학사의 내용을 이룬다.

한편 이치의 근본문제에 대한 물음은 고대 철학이 시작된 이래 누구나 혼동할 수 없는 보편적 개념을 통해 전개되었다. 고대 철학을 중세문명권의 철학으로 발전 계승한 중세의 철학자들은 개념을 가다듬어 사용했고,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논란이 철학의 논쟁사가 되었다.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

는 일이야말로 근본문제에 대해 답하는 일이었으므로 선행의 개념에 대해 시비하고, 다른 이들이 정의하는 개념에 대해 논란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이 철학사의 내용을 이룬다.

『세계의』에서 선생님은 이치의 근본문제를 다음의 네 가지, 즉 있음과 없음에 대한 물음, 궁극적 존재(arche)에 대한 물음, 대립물에 대한 물음, 만물 생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으로 이해하고 이를 0과 1의 물음, 1에 관한 물음, 2에 관한 물음, ∞ 에 관한 물음으로 정식화했다. 이 네 가지의 근본문제에 관한 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기, 음양, 생극 등, 그 용어의 개념적 깊이와 세월의 두께 때문에 접근하기는 어렵고 오해하기는 쉬웠던 용어들을 대신해 단순하고 간단한 용어으로써 이치의 근본문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한국의』의 장면적 전개에 한계를 넘어서는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선생님이 작업해온 문학과 철학의 점점 마련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개념을 발견한 것이 소중한 것은, 이치의 근본인 0, 1, 2, ∞ 를 각 문명권에서 각각의 시대에 따라 어떤 용어를 통해 표명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전개했는가를 살필 수 있어 문학과 철학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논란했는가를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여기가 선생님이 ‘문학연구자’로서가 아니라 인식의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사상가’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선생님이 펼친 논의의 무대는 ‘세계’이고 또 당분간 한국의 장으로 회귀할 의향은 없는 것 같으므로 ‘한국’의 장에서 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의 장에서 벌어진 이치의 근본 문제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서술해 왔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불교’, ‘유교’, ‘도교’와 같은 사상의 각 편에 대한 역사나 정체가 불명한 사상사, 특정 시대의 철학을 다룬 것 등을 제외하고, 전체로서의 철학을 다룬 ‘철학사’를 표명한 저작을 꼽아본다.

1. 정진석, 정성철, 김창원, 조선철학사 상, 과학원 역사연구소, 1961.
2. 최봉익, 조선철학사개요, 평양, 사회과학원, 1986.
3. 한국철학회편, 한국철학사 상중하, 동명사, 1987 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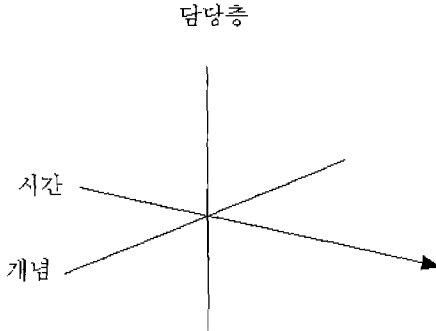
4. 유명종, 한국철학사, 일신사, 1988.

1961년 조선철학사라는 표제를 달고 한국 철학의 발전을 전체로 논한 책이 처음 나온 이래, 1987년을 전후로 해서 다시 한국철학사를 집필하는 붐이 남 북한에서 이루어졌다. 3은 준비 기간은 꽤 되었다고 하지만, 초판 출판이 2와 근접하고 있는데도 2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4는 “북괴는 국가적 사업으로 조선철학사를 내어 유물사관으로 일관 해석해서 우리의 철학사를 외국하여 불쾌하기 그지없다.”고 서문에 표명해 2를 의식한 것과 대조된다. 2는 철학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한국의 철학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4가 유물론적 사관이 철학의 실상을 왜곡했다는 자각을 했으나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물을 나열하고 결국 불교사와 유교사를 합친 저술로 봉합하고 말았으니 오히려 논의가 후퇴했다.

지금까지의 철학사 서술이 이 정도이므로 철학사 서술 방법의 자생적 모델을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북한 철학사 서술에서 드러난 철학적, 역사적 유물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남한 철학사 서술에서 나타난 실증주의적 나열도 극복하는 방법론을 마련해야 하면서 서술의 일관성을 획득할 이론적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선생님은 『세계의』에서 그 가능성으로서 지금까지의 철학사가 0, 1, 2, ∞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의 역사라고 규정한다. 사상의 역사가 난해한 용어와 개념을 가져오고, 심오한 종교 체계와 고도한 학문 체계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철학은 이 네 가지 개념의 변주곡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사상의 비교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관점에 서면, 실증주의적 전망을 택해 철학사를 서술하는 태도는 ∞을 중시하는 사고로 단일한 원리에 의해 철학사를 서술하는 태도는 1을 중시하는 태도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철학사 서술 방법론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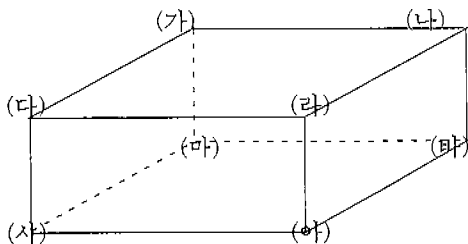
그러나 그것만으로 즉각 철학의 역사가 서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념의 논란과 함께, 그 개념을 논란하는 담당층의 문제가 언제나 중요하다. 그들은 교체되며, 새로운 인식의 체계를 갖고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요소를

더 추가하면 철학사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개념, 담당층, 시간이라는 요소로써 우연히 입체의 축이 형성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시간은 하나의 흐름만을 가지므로 직선 방향을 갖는다. 문제는 개념과 담당층을 수직선상의 수열로써 분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철학의 담당층을 꼽아보면, 구비 철학 지식인, 불교 승려, 선종 승려, 입당 유학생, 고려 전기 문신 귀족, 신진 사인, 신흥 사대부, 사림파 및 그들과 맞선 對他的 지식인 집단들, 노론, 양명학자, 여향인, 근대 시민 등 지식인들이다. 이들을 중세적 신분관의 질서로 상하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지식인에 대한 민중이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면, 담당층의 축을 상하의 양방향으로써 가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19세기 민중 종교 운동은 하층 민중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니 하층 민중들 역시 고도한 철학의 체계를 가진다는 것은 잘 드러나는 바이며, 설령 하층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철학 체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지식인의 이해관계와 민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시기, 상승기의 상승계층으로서의 지식인이 민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때에도 민중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나타난다. 이렇게 담당층의 수준에서는 상하의 방향을 갖는 수직선상에 배열하는 데 일면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념의 축에서 0, 1, 2, ∞ 은 똑같이 중요한 개념이므로 개념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든가 어떠한가든가 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 요컨대, 시간의 흐름과 담당층의 고하와는 달리 개념의 축은 상

하나 변화를 고려할 수 없는 고정된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체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체적 철학사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일단 그 내용을 劃定한 다음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자.



면 가마사다 ; 과거의 어느 시기 각 계층이 이치의 근본문제를 다루었던 개념의 총체이다.

면 가나라다 ; 어떤 계층이 다룬 이치의 근본문제의 역사이다. 면 마바아사도 마찬가지다.

면 다라아사 ; 이치의 근본문제를 다룬 어떤 개념의 역사이다. 면 가나바마도 마찬가지다.

면 나라아바 ; 현재 각 계층이 이치의 근본문제를 다루었던 개념의 총체이다.

철학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학연구방법』⁷⁾과 『통사』에서 확립한 문학사의 서술에 대한 구도와 닮았다. 선생님이 제기하고 검증했던 이 도식은 철학사에서도 여전히 타당할 것 같다. 문학 담당층이 철학 담당층으로, 문학의 갈래는 개념으로, 각각 자리를 바꾼 것이다. 선생님이 문학사의 입체적 서술을 준비했듯 철학사와 문학사의 접점을 마련해 ‘한국의’ 『철학과 문학 통사』를 서술하는 일이 후학에게 남겨진 몫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생님의 체계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다룰 만한지 안에서 따져보아야

7)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이하 『방법』으로 약칭.

하고, 밖으로부터 검증해야 한다.

4. 다시, 철학과 문학으로

『한국의』는 품을 많이 들여 새로운 시각을 연 글이 별처럼 펼쳐져 있다. 그 중에 ‘생극론’은 철학적 논리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특유의 글이자, 같은 시기에 선생님이 세계문학사를 구상할 때 그 근저가 된 사관을 형성한 글이라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글이다. 아닌게 아니라 생극론은 이미 여러 저작을 통해 그 미학적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으므로⁸⁾ 일회적인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상적 기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生克은 陰陽의 두 氣가 서로 작용하는 방식을 말한 것이다. 생극은 生成과 克服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생극보다는 成과 服이 더 있어 원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성과 복의 정지된 상태를 긍정하지 않고, 오로지 생과 극의 운동 상태만을 주목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음양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이면서 서로 다른 것이므로 상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면서도 서로 반대가 되는 독특한 존재와 운동 방식을 보인다. 음양의 운동 방식을 정식화한 생극론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으면서 전체 속의 서로 이질적 대립물의 존재와 운동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것은 전통 철학의 용어로써는 待對의 관계에 있는 物의 운동을 의미한다고 하겠고, 근대 철학의 용어로써는 對立의 관계에 있는 物의 밀치기와 당기기의 운동을 표현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서유럽 철학의 핵심 개념들과 그리 구별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생극론이 의미 있는 것은 음양의 실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작용을 주목해 운동의 원리를 정식화하는데 논의의 방향을 삼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무엇[a]을 인식하면서[P(a)] 어떤 무엇이 아닌 것[¬P(a)]을 배

8) 부제 “연극·영화미학의 기본원리에 대한 生克論의 해명”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특히,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지식산업사, 1997)가 중요하다.

제한다. 우리는 a를 ~a와의 구별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또 a가 a이기 위해서도 ~a가 필요하다. ~a가 없는 a는 인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과 그것이 아닌 것, 어떤 것과 그것의 부정, 존재와 부정이라는 이분법은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기초적 대답이다. 생극론 역시 이와 같은 이분법적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극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양 작용의 문제보다는 음양 실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점을 현실적 실체를 들어 살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선생님이 들고 있는 대립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쌍, 한문학과 국문문학, 기록문학과 구비문학, 공동문어문학과 자국어문학 등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 없다. 그런 점에서 생극론은 위력을 발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서 생긴다. 대립적 실체가 둘 다 소중하지 않을 때, 민주적인 것과 비민주적인 것, 자유와 비자유 등의 대립적 실체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다른 하나를 부정하고 다른 것을 긍정해야 할 때에도 생극의 논리가 유지될까? 현실의 악도 현실의 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내포하고 있다면 비약일까? 선생님은 생극론은 존재 가능한 모든 것 중에 아무 것도 배제하지 않고 가치의 차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민주적인 것인 듯이 말했어도 사실은 현상의 실체를 그대로 긍정하고 둘 사이의 시계추처럼 오가는 교통의 운동만을 긍정한 가장 비민주적인 이론을 배태하고 있다.

또한 어떤 것을 a(따라서 ~a)라고 규정하느냐 b(따라서 ~b)라고 규정하느냐도 자의적일 때 그것의 타당성을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을까? 한문학과 국문문학, 기록문학과 구비문학, 공동문어문학과 자국어문학 등의 대립쌍을 통해 문학사를 이해하는 것이나 여성과 남성, 현실과 허구, 자연과 인간 등의 대립쌍을 통해 문학사를 이해하는 것도 생극론의 문학사적 전망이다.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하는 타당성의 정도도 생극론 자체는 보증하지 않는다.

생극론이 모택동을 상대할 때, 주도적 모순이나 본질적 모순 등 모순론의 역사에서 毛澤東이 기여한 빛나는 업적을 전연 언급하지 않은 것이나, '합이 없는 부정'을 논한 프랑크푸르트학파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생극론의 결함이 다. 대화를 치밀하게 전개하지 않은 때문이다. 운동과 작용만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비전은 상실했으며, 무엇이 운동하는가 하는 실체 규명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생극론의 결함이다. 생극론이 운동을 포기했다는 협의 때문이다. 생극론이 이런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생극론이 현실적 상황 진단을 포기한 채 관념적 논리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가장 운동적이고 역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이론이 잉태하고 있는 현상긍정적인 논리, 정지된 체계와 장르 속에 가두어 놓는 가장 정채적 논리를 극복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선생님이 문학사 기술을 위해 전개했던 섬세한 논의가 철학에까지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입론이 타당하기 때문이지만 그런 입론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문학 담당층이 철학 담당층과 구별되지 않았던 한국 중세가 갖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상을 생각이나 사유와 다르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사상이란, 혼자서의 생각이나 내면의 깊은 사유와 달리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전파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전파력은 언어를 매개로 할 때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언어는 말로 된 것과 글로 된 것이 다르다. 대개의 성인은 말로 이치를 설명했으나, 후대인은 그것을 글로 정착시켰다. 이렇게 해서 문자 자체도 신성한 것으로 격상되었으며, 문자를 운용하는 장부정리인 정도의 신분을 가진 문자 지식인의 위치도 격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文史畵를 함론하는 근거는 그것이 문자 언어로 된 텍스트를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文史畵를 운용하는 주인 공들은 모두 문자 지식인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중세가 특별히 문자 지식인이 주인이었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문학사와 철학사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문학사와 철학사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중세시대로 한정되며, 문학 텍스트와 철학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문자지식인으로 한정된다. 바로 이 점으로 말미암아 『한국의』가 전망하는 세계, 그리고 『세계의』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학과 철학의 행복한 동거는 중세를 토대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 문학과 철학이 지성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분명 한국 철학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대학의 철학과는 해마다 신입생이 줄고 있다. 어떤 대학은 대중문화와 철학을 이어 활로를 찾으려는 고

육책을 내기도 했다. 당연히 철학으로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위세를 빌어 철학이 빌붙어 살길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한국철학 전공자를 서울대학교에서 뽑으려 해도 그럴 수 없었던 사정이 한국 철학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철학 전체로 울지도 모를 일이다.

선생님은 한국 철학이 ‘당해 가고 있는’ 원인을 근대 철학 연구의 실패에서 찾는다. 전통 철학에 대해 무지한 일본인 학자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고, 그 때문에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전통 철학에 대해 염증을 내거나, 오해를 했으며, 그 폐단이 지금까지 이어져 한국 철학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런 회복 불능의 상태는 한국철학이라는 특수한 영역이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철학이 당면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치의 근본을 따지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철학을 연구하고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대오각성해서, 젊은 날에 頓悟하고 지속적으로 漸修해 한국 철학과 문학에서 문제가 된 이치의 근본문제를 따지고 이를 동아시아와 세계의 영역으로 넓히면 철학과 문학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선생님의 결론에 안주할 수 없다. 학자로서 이렇게 다짐하는 일이야 훌륭하다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 철학의 위기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혹 선생님은 몇 몇 학자들만이 있으면 한국 철학은 훌륭하게 명맥을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는 근대 이후 시민 교육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 즉 교양의 민주화라는 성과를 무시하고, 여전히 고대, 중세의 지식인처럼 지식의 秘敎의 전승을 중시하는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이렇다. 중세의 지식인 계층이 일반 민중과 가장 크게 변별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문자를 알고 쓰는 일이었다. 근대 교육이 문맹 퇴치에 가장 큰 정성을 쏟았던 것을 보면, 문자 해독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근대의 표준화된 교육은 언어 문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근대의 교육은 교양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셈이다. 근대의 문인과 철인이 중세만큼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일반 민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기에는 상대적 교양의

폭이 깊지 않은 데 있다. 철학이 붕괴하는 것은 전에는 철학만이 배타적으로 이치의 근본을 따지는 학문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배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장르론의 문제에서도 다시 등장해야 한다. 근대의 문학은 서정·서사·극의 3분화된 장르만이 남아 교술장르가 문학에서 사라졌다고 선생님은 주장하지만 이것도 다르게 보아야 한다. 중세에는 가장 중요한 장르였던 교술장르가 문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문학 이외의 모든 교양에서 민주적으로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인만이 교술문을 쓰지 않고 어느 누구나 다 교술문을 쓸 수 있다. 특히 근대적 교양은 문예문보다는 비문예문인 교술문 짓는 일을 더 중시하고 있다. 논술문과 설명문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는 눈길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잘 아는 일이다. 우리는 엄청난 매뉴얼을 읽으며 살고 있고, 또 매뉴얼을 제작 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근대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교양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철학과 문학이 중세의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가 형편없이 낮아진 것을 근대 학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또 학자들의 자각에 의해서 문학과 철학의 지위가 다시 상승하지도 않는다. 근대가 폭넓은 교양층을 형성하고, 문학과 철학을 대중화하는 데 성공했던 사실을 긍정해야 한다. 근대 극복의 방향은 바로 이 폭넓게 형성된 대중화된 교양층으로부터 비롯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이런 교양의 철학을 수립하는 일이 새로운 철학의 과제이다. 그것은 아마도 다변화된 교양을 통합하는 學制間 연구방법(interdisciplinary method)과 重疊學制的 연구방법(multidisciplinary method)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超學制的 연구방법(transdisciplinary method)을 통해서 수립될 것이다. 그럴 때 새로운 철학의 방법론은 다변화된 교양의 통합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에 대한 탐구를 위한 초학제적 연구방법에서 마련될 것이다.⁹⁾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시론』, 『관련양상』, 『한국의』, 『세계의』 등의 일련의 저작은 근대학문의 총결산이라는 획기적 의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9) 필자는 이에 대한 견해를 “위기의 담론과 문사철의 전통”, 『문화와 사람』 창간호 (사계절출판사, 2000.1.)에서 자세하게 펼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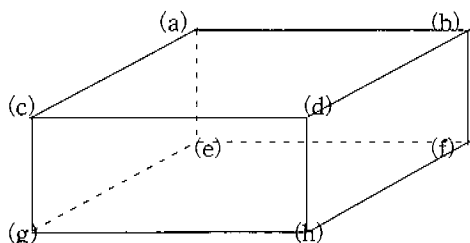
이 저작은 근대극복은 초학제적 탐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는 저작이라는 의의가 더 덧붙여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On the Aspect of the Possibility to Unite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Philosophy

Kim Seong-Ryong

Professor Cho Dong-il is very important and vigorous investigator in literary studies. His meaningful and significant articles and books illuminate many of young scholars. He published *Korean History of Literature and That of Philosophy*, 1996. This book contains many of significant and illuminating articles too. And it is one of the member of serial research on the philosophical approach to the Korean Classic Literature. As he began to publish the result of his serial research at 1978, has published many of significant articles and book and prepares to publish the final investigative works, so *Korean History of Literature and That of Philosophy* is a kind of interlocutory work. We can point out preliminary principles in his method that illuminate and make possible many of succeeding research. He premise that the literary-philosophical history must be investigated by cubic measure.



face aegc ; it is the whole of norms by which every strata investigated the fundamental theory in some past time.

face abdc ; it is a history of the fundamental theory of which some status investigated. Face efhg is the same.

face cdhg ; it is a history of some norms which are related to the fundamental theory. Face abfe is the same.

face bdhf ; it is the whols of norms by which every strata investigated the fundamental theory in nowadays.

This appreciations is very fascinating us as we know it. Even though these of his serial researches are meaningful and illuminating, we must point out some problems in his methods especially in this book. First, historical approach must take a kind of flowing form. Those 10 articles in this book are a kind of an assembling of still picture, so we can not find any necessities that bound these 10 articles. Second his aspect on the history is too academic in its negative meaning. I'm afraid he might think that a few scholars can recover and improve the destroyed situation of philosophy in Korea especially in recent days. Yes it may be in some sense. But he ignores the most clear as light fact that with human evolution the democracy of intelligent also developed. So we must trust the democracy of intelligence because that trust can only make it possible to overcome the modern age.